새전망 모색하는 어둔시대의 횃불

학생운동을 위한 기획시리즈(完) —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글싣는 순서

1. 문제제기-현실을 읽자
2. 집회·시위 양식의 변화
3. 문예운동의 변화
4. 학생회의 변화
5. 학생운동 사상의 변화
6.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1960년대 학생운동

1960년대 당시, 이수병동문과 같이 활동하면서 경희학생운동을 담당했던 전기호 (정경대·경제학) 교수를 만났다.

▲당시의 학생운동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학생운동자체가 지금처럼 합시적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나 학회 등 부분별로 존재하면서 문제의식을 지닌 채로 잠재되어있다가, 사회의 모순이 극도에 달했을 때, 폭발하는 형태였죠. 4월혁명이 좋은 예이겠죠.

▲ 6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방향은 어떠한 방식이었는지요?

—그때의 학생운동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중심적으로 전개한 개별,계통주의 학생운동입니다.

'반독재'에 중점을 두었기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 것을 혁명의 완성으로 파악했었죠. 그후 장면선거 주진위원회를 결성한다던가, 양담배소각, 국산품애용운동 등 일정한 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시작하여 민족,자주,통일 운동으로 성장한 학생운동 입니다.

그 이전까지 합시적인 활동은 없었으나 4.19를 통하여 실천적으로 부각된 후 학상회되어 5.16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학생운동의 주도적 세력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문에서 60년대 후반에는 민족통일학생연맹(이하 민통련)이 결성됩니다. 경희대도 결성 초기에 가담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되죠.

민통련의 핵심활동은 세 분야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한미경제협정에 반대하는 자주운동, 본교에서도 공동투쟁위원회에 동참한 2대악법 반대운동의 민주운동, 통일운동이 그것입니다.

본교 민통련은 이수병동문과 제가 같이 결성하였는데 학생들의 의식이 낮았던 관계로 계몽을 위한 강연회나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운동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회구성자체가 자본주의가 마성숙해서 그런지 민족적 성향이 강했던 점을 우선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노동운동은 거의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시기이니까요.

또한 그당시만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겠지만 학생운동의 선도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변혁운동의 역량은 미약했고, 변혁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 세력이란 학생운동 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당시 제창되었던 민족·자주·통일운동이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그때 학생운동의 선도성이란 구는 합시 변혁선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학생운동이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眞〉

지도부 부재된 미완의 4월혁명

◇ 과학적 사회주의의 도입후 학생운동은 조직성을 띠게 된다

◇ 86년 건대투쟁은 학생운동의 조직력과 투지를 과시하기도 하였으나 대중과 우리된 조직에 대해 비판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1970년대 학생운동

불모지에 핀 학생운동의 조직적 모태

1970년대 경희대 학생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모지에 핀 꽃' 바로 그것이다.

1971년 위수령 반대시위라든가 74년 민청학련 사건 참가(국문과 이상희 등), 반공법(현 국가 보안법)에 얽매인 독자적인 연구소 활동(영문과 김봉우) 그리고 1975년 학내 비리를 없애기 위한 시위 등이 70년대 초중반을 가로지른 경희대 운동이었다.

이 활동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조직적,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선구자적 혹은 양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쫓겨났거나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몰아온 것은 1980년 그러니까 1979년 당시 대통령 박정희씨가 비명에 숨진 다음 학기였다. 그 결과 1980년 1학기는 어느 학교 할 것없이 늙은 복학생과 머리에 괴도 안마른 의협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논쟁으로 점철되었다.

하지만 80년대 운동은 78년 교련거부시위, 79년 유신반대 유인물 사건이라는 표면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사건 이면에 숨겨진 조직적 노력과 의식전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78년 교련거부시위를 주도했던 하석태(영문·3) 신명식(사학·2) 신용남(사학·2)등이 소속된 동아리가 홍사단 아카데미, 백단, 대화주보사라는 것을 상기하고 이후 이곳 출신의 후배들이 해 낸 역할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80년대 경희대 운동의 모태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은 80년대 경희대 운동의 모태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이 있기까지 민청학련 관련자로 군 제대 후 기독청년운동단체인 EYC에서 일하던 이상희의 숨은 노력과 선배들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위는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를 주제로 한 것이었지만 그들 중 일부가 성동구치소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

한편 78년 사건 후 이상희의 지도아래 홍사단(회장 오인택,법학·3) 과 79년에 생긴 서양사상연구회(회장 박영철, 치의예·2) 등과 개별인자들은 더욱 결집하면서 의식의 갱신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갔다. 그때 1,2학년 수준의 필독서로는 '전환시대의 논리' '서양경제사론' 등이 있었는데 이 책들은 냉전논리를 극복하고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는데 초보적인 시각을 제공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성장은 완전히 좌파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질과 양 모두에서 한참미달이었다.

여하튼 이런 신상에서 79년에 정해랑(국문·3) 과 윤종헌(공대·2)이 다시 유인물 사건으로 검거되었다. 그리고 곧 10월27일 박정희 피격, 전두환 주도의 12·12사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한 급박한 정국변화와 더불어 계엄령정지 등으로 불려나온 78, 79사건 주도자들과 후배들과의 만남은 급속히 이루어졌고 이는 의식의 전환과 조직의 확충으로 매듭지어졌다. 여전히 운동권들의 모임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했고 그들의 논의 역시 지하에서 진행되었다.

그때서 그들은 보안을 잘 유지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쌓는 한편 음모가적인 자질도 본의 아니게 기르게 되었다. 습작하는 79년 년월 겨울을 대부분의 성원들은 1개월 간에 걸친 집단 합숙으로 보냈고 80년 민주화의 봄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1980년 봄은 잔인했다.

이 시기 운동의 특징은 앞서 '불모지에 핀 꽃'이라고 말했듯이 경희학원의 운동을 학내외로 확장하는 편초기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더불어 80년대 운동의 조직적 모태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80년대 혹은 90년대 후배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긴장된 모습을 띠는 반면 정반대의 현상으로는 다소 낭만적이며 비현실적인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당시의 운동을 평가하자면 어느 학교나 그랬듯이 수준업적 성격과 비대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식수준 역시 막연하게 자유민주주의의 회득을 주장하는 측면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논리가 정리되지 않은 채 계몽적 차원에서 진행된 약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토대의 부족에서 필연적으로 얻유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희학원의 운동은 여기서 조직적으로 출발했으며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최초의 시위감행과 계속적인 운동의 귀중한 토대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효 인
〈동문·행정 78〉

1980년대 중반이후의 학생운동

I. 1989년 까지의 학생운동

80년 광주항쟁의 성과에 기초하여 꾸준히 성장해온 민족민주운동 역량은 마침내 미·청와대 정권의 유화조치를 토해내게 하였다. 물론 이 유화조치를 80년대 접어들어 국제적으로 냉전기류의 완화와 85년 2.12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정권이 민주적 정통성을 가장하려는 의도가 맞물린 것이기도 하다.

이 맞물린 의도의 유화조치로 경희학생운동의 조직 투쟁활동은 보다 활발하여진다. 84년 총학생회 건설을 필두로 단대학생회, 과학회 등 대중조직의 건설, 투쟁제일 삼민투 등을 결성하여 반독재 투쟁, 민중생존권 투쟁 등을 단절적이기도 하지만 치열하게 전개한다. 특히, 85, 86년에 경희 학생운동은 선도적 정치투쟁을 주요한 실천양식으로 설정하여 왕강한 교문시위 및 가두시위를 빈번히 갖게 되는데 이시기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던 학생들은 일주일만 가두시위를 안해도 민주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어린 심정을 갖곤 하였다.

86년 10월 28일 건대 투쟁, 1525명의 학생이 연행되는 등 세계학생운동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4일간의 축독한 농성투쟁은 학생은동의 조직력과 투지를 과시하기도 하였지만 대중과 유리된 전략주의적 투쟁으로 86년까지 운동의 사상이론, 조직, 대중노선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대투쟁의 엄청난 역량손실의 결과로 총학생회장단을 경희학원 발전을 주장하던 학생집단에 내주고 그 경희학생운동 역량은 과,단대 등의 기초 단위 학생회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이로 인해 87년 전반적인 대중정치 사업에서 마찰이 생겨난 일들도 많았지만 경희 학생운동 역량이 단대학생회를 비롯한 하위단위 대중조직에 총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기초대중역량으로 소위 비공총학을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등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학생운동의 선전선동 공간의 이상이 아니었던 학생회는 학생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대중투쟁의 중심으로 세워 보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한국민중의 투쟁에서 미·청와대 독재를 굴복시키고 부분적인 것 승리를 쟁취해낸 6월 항쟁은 좁다운 대중노선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 결과이기도 하다. 이때로부터 투쟁과 결의를 모아내고 다수의 대중이 실행할 수 있었던 적절한 실천 통은 경희 학생운동이 노선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사상, 이론이 정립되어 나갔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88년은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조국통일운동을 열어젖힌 한해였다. 남북 학생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6.10, 8.15투쟁은 미·청와대독재의 원천봉쇄에 의하여 희담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사회전반에 통일운동을 크게 고무시켰다. 북한어학, 북한의료, 북한사학, 법학 등 각 학과별로 특성에 맞게 전개되었던 북한 바로알기운동은 북한을 통일되어야 할 또 하나의 조국으로 대중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

지금까지 85년에서 89년 동안 있었던 중요 사건들을 계기로 경희학생운동을 살펴보았는 데 이 시기 동안 경희학생운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다양한 대중정치투쟁을 통하여 한국시회 변혁운동은 자주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반미민족해방운동론)이 전략적 과제임을 정립하였다. 80년 하반기 제기된 반미민족해방론은 87년 경희학생운동의 주류로 조직되었으며 자금의 대중조직에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렸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둘째, 학생운동의 주인은 학생대중이라는 평범한 진리로부터 운동의 발전과 승리의 관건은 대중노선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85년만해도 써클중심의 선도적 정치투쟁이 87년 들어 과·단대·총학생회가 골간이 되는 대중투쟁으로 발전되었으며 학내복지사업 등 학생대중들의 일상적인 이해와 요구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속적인 과제로 설정시켜냄으로써 많은 학우들의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갔다.

이러한 성과에 못지않게 잘못된 실천활동도 적지않았는데 여기에는 경희학생운동역량의 대중지도 능력 부족이 그 시기 운동의 한계였었다.

한편, 오류를 살펴보면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질시하는 분파, 분열주의였다.

두번째의 오류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간고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너무 쉽게 좌절하여 6월항쟁, 대선 등 학우들이 많이 함가하였던 대중정치투쟁의 성과를 내실있게 다져내지 못하였다. 우리의 반미민족해방론은 세계최강의 미국을 반대하는 싸움이므로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지적 억압과 수탈로 어떠한 정치적 자유도 육체적 생존마저도 부정당하는 민족민중에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민족과 민중에 대한 억압에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했던 것이다.

김 의 태
〈동문·한의학85〉

실천으로 동참 시킨 대중 투쟁

I. 1990년 이후의 학생운동

90년대에 들어와서 학생운동은 대의원회의 폐지와 전학대회의 신설 등 나름대로 형식적인 변화와 민주적인 의사수렴의 체계화를 이루려고 노력해 왔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전학대회로 전화하지 못한 대학이 많을뿐 아니라 전환한 대학에서조차 완벽하게 그 내용성이 구현되고 있는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생회를 대중조직으로 다시금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강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회 활동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식의 미비보다는 그것을 채워줄 내용과 실제적 활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전대협총화나 각종 행사에서 제기되는 강부혁신이니 하는 말도 언제나 되풀이되는 말로써 치부 될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 아니 어쩌면 일반학생과 간부학생의 구분이 사라져 버린 듯한 요즘의 분위기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매년 개최되는 전대협출범식과 같은 큰 행사는 치룰 수 있어도 일상활동의 총실화를 기해낼 수 없는 것이 현 시기 학생회의 진정한 평가일 것이다.

각 대학의 대동제 모습을 보노라면 대중회를 내세우다 대중화의 취점에 매져 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제 학생회는 전총련,전학대회 ,학반대표모임 등 형식적인 틀에 집착하기 보다는 그것을 일반학우들의 힘에 의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상활동과 내용성의 감화를 이룩해 내야한다. 계속해서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형식의 가위에 눌리게 될 것이다. 형식이란 결국 각 단위 학생회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선전 선동과 그에 뒤이은 투표로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 길 유
〈동문·정외84〉

198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

변혁으로 이끈 과학적 사회주의 도입

79년 박정희대통령의 죽음이후 권력의 공백은 그간 눌려있던 각계각층의 요구를 폭발적으로 분출시켰고, 이것이 학원에서는 학원민주화와 유신타파투쟁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원민주화투쟁으로 시작해 그 성과위에서 정치의 민주화를 향한 투쟁으로 급격히 전화되어갔다.

경희대에서도 이런,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광범위한 학생대중의 참여속에서 민주화투쟁이 시작되었다.

경희대에서 학원민주화의 요구가 높았고 이에 대한 재단의 저항도 만만치않아 타대학과는 달리 학원민주화투쟁은 장기화되었고 정치투쟁으로의 전화도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원의 민주화도 사회와 정치의 민주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항쟁과 전두환의 등장을 맞게되어 학원은 다시 폭압통치의 서슬파런 칼날에 놓이게 된다.

혹고했던 8월말경에 학제되어 다시 등교는 했으나 어디서나 숨죽이는 모습이 역력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행되었던 80년 8월 30일 시위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광주 책임자 처벌과 포고령철폐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격렬한 함의의 표시로 당시 시위주종자중의 한명인 김경(가정대 79)의 음맥을단자살기도까지 있었다. 이는 경희대내의 침체된 분위기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이를 시발로 해서 전국대학에서 각종의 시위가 터져나오게 된다.

광주항쟁과 권력에 의한 잔혹한 진압은 80년 학생운동을 그 이전의 학생운동과는 근본적인 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한다. 양심과 종교에 뿌리를 두고 전개되었던 70년대의 순수저야운동의 틀을 벗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근본적 변혁에의 길로 들어서게된 것이다. 광주에서의 권력에 의한 잔혹한 진압은 한편의 파괴적인 무력감이면에 사회의 근본변혁의 불가피성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했다.

또한 광주에서의 민중봉기는 전민노련과 함께 결성되었으며, 노동계급을 문제해결집단으로 보고 학생운동을 문제제기집단으로 규정하여 학생운동이 노동계급운동의 성장을 일조하면서 남한사회의 강력한 비공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전국적 규모로 조직할 계획을 가졌다.

이때부터는 시위의 양상도 변화하게 된다. 과거의 투항적이고 저항적인 모습에서 공격적이고 선동의 공간확보를 위한 방어물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다.

경희대학생운동의 주요부분도 전민학련의 결성에 가담하였고, 이의 방침에 따라서 당시 지하써클을 주요한 주축이던 아카데미의 시위를 조직하게 된다.

82년 이전반대시위, 광주책임자 처벌과 전두환정권타도시위, 83년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투쟁, 레이건 방한반대시위 등. 특히 82년 시위는 중대와 산대의 수원이전반대요구에 입각해서 광범한 학생대중의 참여가 있었으며 경희대 최초로 공권력의 투입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부상을 당하면서 천파란파로 번지자 80년의 학원민주화투쟁에도 꼬맹치지 않던 총장이 시위를 함으로써 일단락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가지 방상을 하게된다.

이전의 폭로성시위에서 줄더 학생대중이 동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화를 고민하게 되면서 화회나 공개써클에 대한 작업에 비중을 쏟게 되고 학생대중의 요구와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등이 전개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에는 당시 학원에 상주해있던 경찰병력이나 학생처의 반동적 움직임이 끊임없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학생운동이 소규모 지하써클식의 좁은 활동에서 벗어나 학생대중과 결합하기까지는 대결할, 대반동 보직교수들과의 투쟁이 맞닿뜨리었으며, 84년 유화국면에 이르러서야 학생회를 통한 학생대중과의 결합은 본격화되게 된다.

80년 초반의 학생운동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와 폭로가 조직성을 띄게되고, 대부분 학생운동출신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사회운동과 연결하여 노동운동으로의 이전을 준비하게 되는 성과를 갖는다. 하나 이 운동은 아직은 소규모 지하써클의 자기모색단계에 불과했다. 84년이후 유화국면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대중정치투쟁의 시기를 맞게되고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

이 우 선
〈동문·사학80〉